

한국의 해상운송사령부(MSC) 도입에 관한 소고

김성국* · 정하균** · 이용재****

*, ** 목포해양대학교 *** 보훈교육연구원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Sealift Command in Korea

Sungkuk KIM* · Ha-Gyoon Jung** · Yongjae Lee****

*,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 & Veterans

핵심용어 : 해군, 선원 교육, 해기사, 해양력, 승선근무예비역

Key Words : Navy, Seafarer education, Nautical officer, Sea Power,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1. 개요 및 연구목적

한국 해군은 점증하는 대양해군의 역량강화에 따라 충분한 항해 능력의 확보와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병력자원의 확보측면에서는 최근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병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자원의 확보를 위해 미국의 해상운송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2. 해군 확대의 필요성

국가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각군의 병력구조와 병력자원의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군의 대규모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공군의 병력은 변화가 크게 없다. 하지만 해군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3국의 이해가 상존하고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지만 곤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상비병력 감축 계획

	상비병력	육군	해군	해병	공군
2016	62.5	49.0	4.1	2.9	6.5
2022	52.2	38.7	4.1	2.9	6.5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16』, 2017, p. 89.

또한 해군의 경우에는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는 이동형 세력이기 때문에 향후 연안방위에서 벗어난 대양해군의 전략은 전투함과 지원함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유사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운송수요는 전투함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사시 매우 치열한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단기전의 승부는 막대한 군수지원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선박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은 전투력 강화는 기본이고 수송능력 확보 등 타 군보다는 역할이 더 커질필요가 있지만 병력의 증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3. 미국 해상운송사령부의 의의

세계 최강의 해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282척의 함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공모함 11척을 포함한 전투함정은 159척이며 수송선 및 상륙지원선 123척은 민간선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즉 전투함정에는 철저히 전투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지원함은 해상운송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를 통해 민간인 선원을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49년에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출발한 MSC는 1970년에 해군소속으로 편제된 후 해병대, 육군, 공군의 군수물자까지 수송하고 있다.

또한 미국 MSC의 선원은 대부분 7개 상선대학을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해양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인력공급에 대해서 해운업계와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4. 결론

해군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역 자원의 추가 확보가 곤란할 경우 해군의 보조세력은 MSC를 도입하여 예비원으로 충원하거나 민간인을 군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함정지원 선박의 운영을 MSC로 운영할 경우 해군 전투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해군퇴역군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경로관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MSC는 민간 해기사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해양대학 등 국가 교육시스템을 활용하고 승선근무예비역과 유사시 수송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First Author : conrad@mmu.ac.kr, +82-61-240-7150

** Co-Author : jhk3455@hanmail.net, +82-61-240-7237

† Corresponding Author : 86951321@hanmail.net, +82-31-244-8192